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극작가 페트릭 마버의 희곡 '클로저'를 영화화한 동명의 작품이 그리고 있는 사랑의 세계는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 마이클 니콜스 감독이 그리는 세계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며 오히려 사랑의 명분을 뒤집어쓴 가문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첫 대사로 시작하는 영화는 스트립댄서 엘리스(나탈리 포트만), 신문기자 덴(주드로), 피부과 의사 래리(클라이브 오웬), 사진작가(줄리아 로버츠) 네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운명처럼 만나게 된 네 사람은 서로 쉽게 빠져들고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깨어진다. 영화 속 네 사람의 사랑은 우리들이 살아

아니라, 심지어는 오페라의 내용이 영화의 진행을 암시하거나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코지 판 투테'는 우리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의미. 이 오페라는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부파 가운데 한 작품이다.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에 의한 마지막 작품으로, 1790년 1월 빈에서 초연되었다. 실제 오페라는 아름다운 멜로디로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막장의 내용을 다룬 드라마이다. 세 명의 남자가 여자의 정절과 사랑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속칭 요즘말로 치면 배우자 바꾸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뤄진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깨어진다. 영화 속 네 사람의 사랑은 우리들이 살아

영화 '클로저' 중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현실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가면서 겪어왔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네 명의 배우들이 현실의 삶에서라면 쉽게 드러내지 못할 불편한 진실들을 노골적으로 깨발러 놓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랑의 본질을 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closer)은 가장 낯선 사람(stranger)과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영화는 막을 내린다.

러서 오�히려 인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솔직한 담론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가장 칼 범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이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예리하지는 않지만 담백하면서도 가장 빈 스타일의 유려한 연주를 들려줄 줄 알았던 범의 모차르트 오페라 앨범들은 한번쯤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연주들이다. 최근의 앨범으로는 르네 아파스가 콘체르토 필름을 이끌고 녹음한 시대악기 연주가 주목할 만 하다. 하르모니아 문디 레이블의 섬세하고 투명한 녹음과 어울려 최상의 사운드와 함께 상쾌하고 날렵한 해석을 들려준다.

아마도 '코지 판 투테'의 마지막 곡이 끝나는 순간, 영화 '클로저'의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스쳤던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리스트>



■ '세계 아리랑 축전' 예술감독에 김명곤 전 문광부장관

“광주정신 담은 젊고 새로운 아리랑 만들터”

광주시가 주최하는 '세계 아리랑 축전' 예술감독으로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임됐다.

김 감독은 '아리랑'과 인연이 많다. 1986년 창단한 극단 이름이 '아리랑'이었고, 첫 작품 역시 '아리랑'이었다. 영화 '서편제'에서 청산도 굶이길을 내려오며 그와 오정혜·김규철이 함께 부르던 '진도 아리랑'은 그를 가장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다. 현재 예술의 전당 인턴으로 근무중인 딸의 이름도 '아리랑'이다. 아들 역시 아명이 '아랑'이었다. 김 감독이 친필 써인 해 건네준 자전 '꿈꾸는 광대'에도 '아리랑'에 대한 글이 담겨 있다. 9일 광주시청에서 김 감독을 만났다.

김 감독은 "‘아리랑’이라는 테마는 이래 저래 연이 많아 애정이 담긴 소재라 제안이 많고 굉장한 반가웠다"며 "부담 많지만 새로운 도전이다"고 말했다.

“아리랑”이라는 소재가 보편적이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낯은 아이템이라는 느낌이 있어 프로그램을 짜는 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좋죠. 하지만 나후되고 현대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리랑’의 이미지를 현재화·현대화 시키는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 회상적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삶과 연결된 ‘아리랑’이 더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일반 관객들 중에서도 어린이·젊은이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게 숙제라고 생각해요. 젊고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어야죠. 아리랑의 근사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관의 개입 최소화, 시민·예술인들 비전·꿈 반영할 것

“부담 많지만 새로운 도전” 어린이·젊은이도 즐길 축제로

“축전의 성격을 드러낼 주제공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총괄 프로그래머 등 현재 창작팀을 꾸리는 중인데 시기가 촉박해 관련된 형식을 갖춘 뮤지컬이나 창극 등 드라마적 요소가 아주 강한 작품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리랑의 시원을 시작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과 유랑, 삶의 여정 속 아리랑이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광주의 역사와 고난과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비전으로 승화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상중입니다. 음악, 연기, 무용, 영상 등이 결합된 교섭극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부족해 작곡과 대본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소리축제 등 대형 축제의 시작부터 함께하셨는데 축제의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공한 축제들은 예술가의 꿈, 시민들의 꿈이 커져가는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예술가들이 연출, 영상, 안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모의 행사라면 2~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조금 늦었죠. 요즘 지자체가 많이 시도하는 소위 브랜드 공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1년 단위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본 작업만 해도 6개월~1년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단기간으로 제작하다 보면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잘 안되는 거죠. 장기프로젝트로 길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연출가, 배우 김명곤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중이신가요.

▲4월 13일부터 서울 동숭아트홀에서 이순재·장민호씨가 출연하는 ‘아버지’를 공연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을 한국 상황에 맞게 해석한 작품으로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는 글도 열심히 쓰고 무대에도 서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나 관료들의 꿈이 앞장 서서 만들어지는 축제는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많은 축제들이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경우가 많죠. 이번 축제도 관에서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전문 예술인들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 추진위원들의 열정과 애정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리랑축전이 지역민들이나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축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요. 광주 지역에서 탄생한 축제니 당연히 광주의 아리랑이 그 중심에 있겠죠. 이어 민족의 아리랑, 세계인의 아리랑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죠. 물론 올해 첫 행사가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즐기고, 국민이 즐기고 세계 공연자들이 몰려오는 페스티벌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축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역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사랑하고 호감을 갖고 함께 할 때 축제는 커갈 수 있어요. 관에서 돈 따와서 공감대 없이 ‘우리 이거 키우자’ 해봤자 성공할 수 없을



광주·민족·세계와 함께

‘세계 아리랑 축전’ 10월 12~14일

오는 10월 12~14일 3일간 광주문화예술회장과 광주전 등지에서 열리는 세계 아리랑 축전은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전국민, 전세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계아리랑 축전 개최를 위한 제1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은 시인을 위원장으로, 김명곤 전 장관을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했다.

행사를 진행할 광주문화재단은 축전의 기본개념을 ▲광주아리랑 ▲민족아리랑 ▲세계아리랑으로 제안했다.

“광주아리랑”에서는 주제공연 ‘님을 위한 아리랑’ (가칭)을 제작 시연하게 된다.

“민족 아리랑”은 ‘전통아리랑 한마당 큰잔치’ ‘창작아리랑 쇼케이스 및 문화난장’ ‘아리랑프린지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 아리랑’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연단 공연, 세계인의 아리랑, 다문화 가족이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추진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축전 및 주제공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공모해 시민참여형 심사를 거쳐 새로운 이름을 지을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순천 시티투어 16일까지

순천 시티투어는 법정스님 입적 2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특별한 기획투어를 갖는다.

이번 기획 투어는 법정 스님의 입적 및 출가 분사인 송광사와 17년동안 머물렀던 불일암을 거쳐 순천만 갈매여차를 이용해 정재봉 작가와 주고받은 서한문 등이 전

시되어 있는 문학관을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어 갈매, 갯벌, 칠새들의 생태 천국인 순천만도 찾는다.

예약은 관광순천 홈페이지(tour.suncheon.go.kr)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061-749-3328)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아이에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